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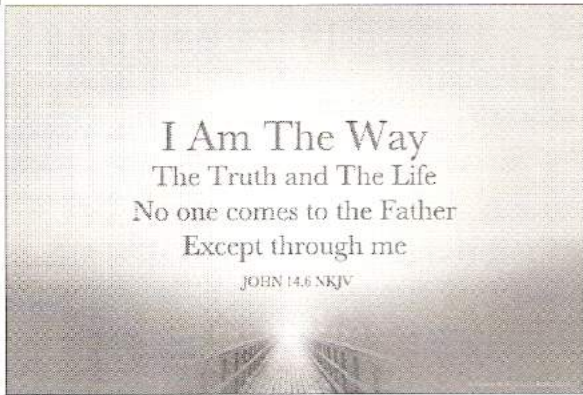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5주일
제37권 25호(가해) 2017년 5월 14일

[묵사]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JOHN 14:6 NKJV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

이 세상에는 길이 참 많다.
목적지에 따라 바른길도 있고 엉뚱한 길도 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길도 많기 때문에
길을 잘못 택하면 엉뚱하게 다른 곳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처럼 세상에는 길이 참 많고,
그 때 그 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따라 길을 잘 선택해야 한다.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올바른 길은 아니다.
많은 길은 결국 허무와 허탈을 초래하는 길이며
참된 가치와 의미를 지닌 길은 드물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이르는 길은 많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은 드물다.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스스로 어느 한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이,
그 원리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참된 길이요,
참된 원리임을 이미 보여 주셨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이요, 결정이다.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미사 안내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짝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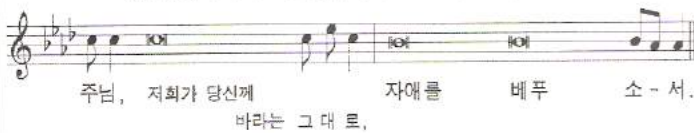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의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현)서성용 베드로, 정상수, 한운수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박승효 & 박 레이몬드 (생)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김종우 안드레아, 이정수 리나 & 이상청 토마스 & 이태희 마르코
주일 학생	(현)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변진섭 다두 (생)
주일 낮 미사	(현)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이용완 & 홍숙녀 마리아 & 이두재 마리아 & 이숙자 루피나 & 김정숙 고준희 제임스, 박정미 클라라, 권순봉 요안나, 연옥영혼, 홍다두 & 홍방지 & 장데레사 & 홍아오스딩 & 신본아파시오 & 송요안나 & 신수산나 & 박마리아 & 박영진, 김풍길 바오로, 김정례수산나 (생) 정애나 & 린다 & 엘리스, 김진엽 마지아, 손석 스테파노, 박태원 토마스 아퀴나스 이인석 비오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6,1-7

화답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울곧은 이에게는 찬양이 어울린다.
비파 타며 주님을 찬송하고,
열 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제 2독서 베드로1서(1 Peter) 2,4-9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복음 요한 (John) 14,1-12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
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공동의 집을 돌보는 것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이세상의그어떤것도우리와무관하지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자신을 만드는 자유만이 있는 것은 아
니다.”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
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정신과 의지 뿐 아니라 본성도
있습니다.” 12) 아버지다운 마음으로 베네딕토 16세 교황
님께서는 피조물이 손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셨습니다. 곧 “우리자신이 최종 결정을
내리고 모든 것을 그저 우리의 소유물로 여겨 우리 자신
만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피조물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높은 법정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자신 이외에
아무 것도 보지 못한다면 피조물의 착취가 시작됩니다.” 13)

동일한 관심을 통한 일치

7. 베네딕토 16세교황님의 이러한 말씀은 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과 시민단체들, 그리고 이 문제와 관
련하여 교회의 사유를 풍요하게 해 준 모든 이의 성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 밖의 다른 교회와 교회
공동체와 다른 종교 들도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 모
두를 어지럽히는 문제들에 관한 소중한 성찰을 하였습니다.
다. 한 가지 좋은 예로, 제가 온전한 교회 친교의 희망을
나누고 있는 존경하는 바르톨로메오 총 대주교님의 말씀
을 간단히 인용하고 싶습니다.

8.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님께서는 특히 우리 모두가 각
자의 방식으로 지구를 해친 것을 회개 할 필요를 언급하
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작은 생태적 피해를 일으키면”
우리가 “크든 작든 피조물의 변형과 파괴를 야기한다는”
14)사실을 인식하도록 요청 받기 때문입니다. 총 대주교
님께서는 강하고 설득력 있는 어조로 이를 되풀이하여
말씀하시며 우리가 피조물에게 저지른 죄를 인정 할 것
을 촉구하셨습니다. < 계속>

12. 베네딕토 16세, 독일 연방 회의에서 한 연설, 베를린, 2011.9.22., AAS 103(2011), 664면.
13. 베네딕토 16세, 볼차노-브레사노네교구성직자들에게한연설, 2008.8.6., AAS 100(2008), 634면
14.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 피조물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2012.9.1.

오늘의 성가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7	187	162
봉헌	264	264	267
성체	304	304	283
파견	어머님은혜	어머님은혜	324

마음이 산란할 때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은 최후의 만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팔아 넘길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셨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면서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리십니다. 이에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베드로에게 답이 올기 전에 3번이나 당신을 배반하리라는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당혹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우리는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산란하지 않은 마음을 늘 유지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음을 잘 압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당혹스럽고 불안한 마음을 믿음으로 맞서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바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할 때는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모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해 모아진 그 마음 안에는 생명과 빛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과 빛은 나를 산란하게 만드는 실체와 맞설 수 있는 힘이 되고 저력이 됩니다.

간혹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의 큰 갈림길이나, 학교진학, 진급, 결혼 등을 앞두고서 심한 불안과 초조함이 그 원인이 됩니다. 사실 위기와 절망에 처하면 처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시련과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다 깊은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유혹을 통과하면서 나의 믿음은 더욱 깊어지고 굳어집니다. 깊어지고 굳어진 믿음은

앞으로 더한 절망과 위기에서 나를 이끌어 내고 살립니다. 주님 덕분에 존재론적인 든든함이 나를 감쌉니다. 이에 대한 출발점은 나를 산란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 실체를 놓고,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분명한 길이 있고 진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독상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복음 끝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요한 14,12-13)

◆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얽잡아 보다가

늘 다니던 길에서 넘어졌습니다.
공사를 하느라 생긴 자잘한 돌을
미처 보지 못하고 밟았던 것입니다.
커다란 장애물은 조심하거나 피해 갈 수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것은 대책도 없이 넘어져
후유증은 물론이고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 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정광미 프란체스카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	시무궁 루이스	박진수 스테파노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데레사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안나희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러렌시오	송인선 안젤라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	이만석 미카엘	이민상 요한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강해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서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 시작 20분 전에 독서와 복음 읽기를 합니다.
- 매일미사책이나 성경을 가지고 미사에 참여 합니다.

Happy Mother's Day!

어머니 날을 맞아 모든 어머니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 제14회 백삼위 한마당 가족 체육대회

21일(주일) 11:00am~5:00pm

- 미사 시간변경 : 아침미사(오전 7시30분)와
낮미사(오전 10시) * 학생미사는 오전10시 미사와 통합
- 장소 : 축구장 잔디밭
- 대상 : 구역별 전 신자
- 청팀 : 토런스 동, 서, 남 구역
- 백팀 : 토런스 북, 하버 / 카슨, PV 구역
- 경기종목: 피구, 엉덩이 뒤에 풍선 달고 꼬집어 터뜨리기,
축구, 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짝짓기,
어깨마주잡고 발등풍선 터뜨리기, 신발 멀리 던지기,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장애물달리기
- 경품 : 한남마켓상품권, 스타벅스 상품권, 요거랜드 상품권
- 참가상 : 끝까지 남아있는 가족당 쌀 1포씩
- 문의 : 박개순 도미니코 문화체육분과장 ☎(310)971-7043

◆ 2017 예비자 교리반 모집 합니다.

- 교리기간 : 5.18~12.7 (목) 저녁 8:10~9:10
- 환영식 : 5. 14일(오늘주일) 11시 미사 후 강당
- 세례식 예정 : 12월10일
- 연락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2017 ~ 2018 학년도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 장학금 신청 안내

올해로 여섯번째를 맞이하는 '백삼위 한인성당 장학회'가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받습니다.

- 수혜대상 : High school 12학년 ~대학1~3학년 재학생
- 자 격: 본당 등록 신자의 자녀로서, 교회 활동과
봉사에 참여하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신청 기간: 4.29.2017 ~ 5.31.2017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음.)
- 수여 예정일은 8.6.2017 (주일)
- 문의 : 본당 신부님

◆ 아침 성가단원을 모집합니다.

- 연습시간 : 아침미사전후 30분
- 연락처 : 정데레사 ☎(310)650-6993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 이메일 : 103skccks@gmail.com

◆ 성전 조명공사를 위해 도네이션해 주신

김은 안나자매님 감사합니다.

◆ 21일(다음주일)은 본당 체육대회, 28일은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두 주간 주일학교, 한국학교
수업 없습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5월 14일: Mother's Day, 친교자리 없음
*주일학교 : 피자(자부들)
- 5월 21일: 본당 체육 대회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고은별	금영도	김관기	김기정	김상근	김선영
	김선제	김양금	김여순	김윤진	김은화	김중훈
	김현숙	노혜숙	민성원	박씨니	박완철	박은영
	박인식	방정복	배태임	서은희	송기철	송영미
	안민수	양영자	오세원	오수인	오신재	원건희
	유근우	이근모	이근태	이상석	이영희	이은경
	이인석	이정분	임의용	전정일	정판영	정훈모
	주용순	최기호	최길주	최상만	최수복	최재은
	최지영	한장환	한혁수	호경진	황인중	익명
	합계:\$5,055					
주일미사헌금 :\$2,354						

성전헌금	금영도	김관기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윤진
	김현숙	노혜숙	박씨니	박완철	박인식	방정복
	안민수	양영자	오세원	오수인	원건희	유근우
	이근모	이근태	이상석	이영희	이인석	이정분
	정판영	주용순	최기호	최길주	최상만	최재은
	최지영	한장환	황인중			
	합계 : \$1,575					
	2차헌금 : \$624					
	감사헌금: \$50(이인석)					

남가주 소식

◆제 23차 남가주 선택주말 (Choice Weekend)

- 장소 : De Paul Evangelization Center
420 Date St., Montebello, CA 90640
 - 일시 : 8월 11일 (금) ~ 8월 13 일 (주일)
 - 대상 : 24 ~ 36세 사이의 남가주 가톨릭 미혼 남녀
 - 참가비 : \$300 (신부님께 본당 지원 가능 확인)
 - 신청마감: 6월 18일
 - 대표전화: 콕호신 미카엘 (213) 568-5470
또는 23rdchoiceweekend@gmail.com
- 신청서는 성당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니 문의해 주십시오.

◆2017 성령쇄신 봉사자 세미나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루카 1,38)

- 일시: 5월 19일(금) 오후 3시~21일 (주일) 2박3일
- 장소: 아씨시 피정센터(Poverello of Assisi Retreat House)
1519 Woodworth St. San Fernando, CA91340
- 강사: 정건석 프란치스코 신부 (예수회소속)
- 참가대상: 각성당 기도회원 및 관심 있는 신자
- 준비물: 성경, 묵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컵, 미사 지향 및 헌금
- 참가비: \$130.00(숙박비 포함)
- 문의: 본당 성령기도회장 강혜원아네스 ☎(310)780-0369

봉사회 교육부 권글라라 ☎(562)228-5629

- 주관: 남가주 성령 쇄신 봉사회(K.C.R.M)714-343-4771

◆미서부지역 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CLC)특강안내

- 주제: 영신수련
- 강사: 신원식 신부(예수회)
- 일시: 5월16일 (화)~17일(수), 저녁 7시~9시
- 문의: 성아그네스 성당
- 문의: 하세실리아 ☎ (323)578-2230

◆2017 남가주 청년 연합회 주최 캠프 '심포'

- 주제: '공감' "주 너의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여호1, 9)"
- 일시: 2017. 5. 19(금) ~ 21(일) 2박 3일
- 장소: 테메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37885 Woodchuck Rd 79 S Temecula, CA 92592
- 대상: 미혼 한인 카톨릭 청년 누구나
- 참가비: \$130
- 신청: 연합회 회장 임성오 바오로(714)388- 2366

◆예수성심 피정의 집 건립

- Payable to: Jesus Sacred Heart Retreat Center
Mailing Address: PO Box 75509, LA, CA 90075-5509
- 금액에 상관없이 벽돌 하나 봉헌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자동입금도 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Bank of Hope 은행
Routing No. 122038251
Account No. 001913271
- 문의: 최대제 신부 ☎ (213)248-9707
아그네스성당 ☎ (323)731-4433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윤미애 안나 560-7120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박명순 안나 968-7600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타 384-3289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3	신혜정 토사 213-369-0687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체육대회로 대체 5/21(주일)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세진아, 성당은 신부님 보고 가는 거 아니야

천주교와의 인연은 유치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동네에 성모유치원이 있어서 들어가게 됐고, 이후 초등학교 때는 또 어쩌다 혼자 성당에 다니며 세례를 받았으며 고등학교도 우연히 가톨릭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선생님이 학교, 제게 냉담 중이라며 특별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자주 말씀하셨지만, 강요가 없었던 학창시절로 기억됩니다.

그러다 방송국에 입사하고, 마음고생이란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면서 주변에서 종교에 의지하는 선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개척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죠. 작은 교회인 만큼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성의껏 들어주는 목사님이 계셨고, 기도하는 법도 알려주셨고, 두 손 꼭 붙잡고 기도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의지할 데가 생겨서인지 다니다 보니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해서 어느 순간 목사님의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냉담을 하게 되었고, 저는 종교에 대한 비판만 늘어놓고 저만의 고립된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활이 길어지던 중, 기독교 신앙심이 깊은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제게 유일하게 진정한 신앙인으로 보이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난 목사님에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싫다고. 깊이 없는 비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대답이 제 입을 더 이상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세진아, 교회는 목사님 보고 가는 거 아니야. 하느님 보고 가는 거지~”

한때 성당에 다니면서 너무 형식적이다, 마음을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성당을 다녀도 되나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후 신앙심이 깊은 가족과 결혼의 인연을 맺고 여러 성당을 다닐 기회가 생겼는데, 강론을 쭉 읽어 내려가기만 하는 신부님, 연세 있는 어르신들을 거의 꾸짖듯 강론하는 젊은 신부님을 비롯해 봉사자들이 쉴 수 있도록 기타를 연주하며 전례 진행을 직접 하는 신부님,

어린이들을 성당 맨 뒤 구석진 좁은 방에 두지 말고 분위기 산만해져도 함께 나와 앉아서 미사를 보게 하자는 신부님 등 여러 신부님을 보면서 다시 예전 그 친구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말이죠. ‘신부님 보고 성당 가는 거 아니야 세진아, 하느님 보러 가는 거지~’

오늘도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하느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많은 신자들이 이 자리에 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은 무엇을 전하고 싶으신지 귀 기울이는 데만 온 힘을 집중해봅니다.

◆정세진아네스 / KBS 아나운서

[길을 찾는 그대에게]

요즘 제 모습이 못난이 같아 속상합니다. 일도 마음대로 안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꾸 못난 모습이 드러나 우울합니다. 이런 기분이 들 때마다 기도도 하지만,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나의 나약함이 사라지기를, 내 삶의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완벽한 모습과 완벽한 삶을 원하고, 하느님께 내가 바라는 완전함을 청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자기가 완벽하게 느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같이 ‘못난이’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나 자신이 완벽하다고 느낄 때, 오히려 삶은 부족해집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겸손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느님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루카 10, 21)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인은 하느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만나고 체험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못난이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기도도 더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느님의 위로와 힘을 얻고자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느님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기억하며 위로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지순례 — 1. 명동대성당

소한 무렵의 추운 날, 명동에 들어섭니다. 동장군도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의 화사한 표정에서 사해동포의 향기가 물씬 배어납니다. 종현(鐘峴)에 우뚝 선 고딕 양식의 명동성당이 늘 한결같습니다. 붉은빛 벽돌이 꿈꿨던 날을 따사롭게 합니다. 평일 오후여서인지 성당 안이 참 고요합니다.

1898년 5월 29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축성된 성전에서 주님을 독차지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대성전 앞쪽의 문을 열고 나서자, 바로 아래 편에 지하소성당으로 들어가는 양증맞은 쪽문이 보입니다. 제대 바로 뒤 유리문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실내가 어두워서 빛이 더욱 찬란합니다. 그야말로 암울한 시절을 환히 밝히던 분들의 유해가 안치된 묘역입니다. 기해박해(1839) 때 순교한 성 앙베르 주교, 성 모방 신부, 성 샤스탕 신부, 성 최경환 프란치스코, 성 김성우 안토니오, 이 에메렌시아와 무명 순교자, 그리고 병인박해(1866) 때 순교한 푸르티에 신부와 프티니콜라 신부가 우여곡절 끝에 이곳에서 쉬고 있습니다.

1800년, 천주교에 호의적이던 정조가 승하하자 노론 벽파인 정순대비가 어린 순조를 대신해 섭정했습니다. 대비는 천주교 신자가 많은 남인 시파를 몰아내기 위해 사악한 천주교를 토벌하라는 1)척사윤음(斥邪綸音)을 반포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나라에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세 성인사제들은 신자들의 수난을 막기 위해 포도청에 자진 출두해 새남터에서 2)01군문효수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양업 신부의 부친인 성 최경환은 포도청에서 태형으로, 성 김성우는 당고개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두 분 평신도와 두 분 사제 역시 영광의 화관을 썼습니다. 이분들의 피가 지금도 한국천주교회의 심장을 웅숭음치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마태 26,69-75)베드로 사도조차도 예수님이 붙잡혀간 날, 너무 두려운 나머지 하룻밤에 세 번씩이나 스승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선조들도 그 한마디면 죽음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치지도 않았고, 천주를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모진 고문과 배고픔과 목마름 속에서도 주님을 용감하게 증거한 순교자들 앞에서 고개를 떨어뜨리는 까닭입니다.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 자진해 순교한 세 목자의 사랑에 목이 맵니다. 양 냄새 나는 사제가 돼야 한다고 권고하는 오늘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순교자의 붉은 피는 현대에 들어와 압제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원천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단장된 성당 언덕길을 내려오며 오늘의 백색순교와 더불어 인권과 정의를 되새겨 봅니다. 소담스런 함박눈이 내리면 좋을 날입니다.

1) 척사윤음(斥邪綸音): 사악한 천주교를 치라는 왕의 문서

2) 군문효수형: 죄수의 목을 베어 군문(軍門)에 높이 매달아 놓는 형벌

◆ 김문태 힐라리오 /가톨릭대학교 교수

「성경 속 동식물」 19 하느님의 재앙으로 쓰인 모기

하느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때 모기가 나온다. “지팡이를 뺏어 땅의 먼지를 쳐서 ... 모기로 변하게”(탈출 8,12 참조),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을 치자 먼지가 모두 모기가 되었다.”(탈출 8,13참조)

한편 “주민들은 모기떼처럼 죽어 가리라”(이사 51,6)는 말씀은 땅에 사는 사람의 목숨은 하루 살이 목숨 같지만 하느님의 구원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비유이다.

◆ 「성경 속 동식물」 /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발행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젤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1단 6개월 \$ 120, 1년 \$240
(12월, 6월 신청가능)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규 요한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플베다길

## 뚜레쥬르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밑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Prudential  
푸르덴셜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빌리나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중,고,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Heather Chong (정혜경)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